

도보로 돌아보며 시간을 되새겨보는 곳, 아카시

아카시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준비하다.
음식, 해협, 역사, 시간을 테마로 한 아카시의 거리를 만끽해보자!!

아카시아키(계란구이)

다코야키의 근원이라고도 불려지는 아카시를 대표하는 명물. 말랑말랑한 반죽 속에 씹는 맛이 있는 문어가 들어간 아카시아키는 맛국물에 찍어먹는 것이 기본. 시내에는 약 70 곳의 전문 점포가 있으며, 현지에서는 계란구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다.

경사진 나무판에 담겨지는 아카시아키. 원재료는 말전분인 「진 고나」가 사용되고 있다.



우오노타나 어물 상점가

'아카시의 부엌'으로써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상점가. 아카시 도미와 문어를 비롯한 히루아미의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어묵제품과 토산품 등 약 백여 점포가 늘어서 있다. 현지에서는「우오노타나」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아카시 문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카시 문어. 빠른 조류로 단련된 두껍고 짧은 다리가 특징으로 씹는 식감이 좋다. 말린 문어, 문어 밥, 센베 등의 명산품은 물론, 회와 튀김 등의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붕장어 구이

기름기 오른 두툽한 살의 붕장어는 도미, 문어와 버금가는 아카시의 3대 명산품의 하나. 특히 달콤짭짤한 소스를 발라 고소하게 구워낸 붕장어 구이가 유명하다. 각 가게마다 소스와 구워내는 정도에 따라 특징이 있어 그 차이를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다.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먹거리 의 도시



아카시 해협과 히루아미가 맛있는 해산물의 비밀

세토나이 해에 접해있어 자연이 풍요로운 아카시시. 그 중에서도 아카시 해협은 물고기에게 있어 영양이 풍부하며, 빠른 조류로 인해 탄력있는 살을 가진 물고기가 자라는 풍요로운 환경의 어장이다. 그리고, 「히루아미」라고 불리는 경매시장이 있어 아침에 잡아올린 생선이 점심 때에는 어물점과 식당으로 배달되어 신선도 높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이 뒷받침하는 아카시의 식문화를 만끽해보자.

아카시 도미

아카시 해협의 빠른 조류와 풍부한 먹이로 자라서 살이 탄력있는 아카시 도미는 국내에서도 일등품이다. 도미를 통째로 숯불에 구워 장군에게 헌상한 것이 통구이의 시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축하할 일이나 답례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카시의 특산품.



아카시 해협 다교

아카시 해협에 세워진 전장 3,911m의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주탑의 높이는 해면에서 약 300m로 보는 이를 압도시킨다. 라이트업된 야경도 놓칠수 없는 광경. 아카시 쪽에서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 아카시 해협 다교 모두가 담긴 대 파노라마가 눈 앞에 펼쳐진다.



해협 도시

바닷 바람을 느끼며 맘도 몸도 재충전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15.6km의 해안선이 있는 아카시. 해안가를 따라서 웅대한 아카시 해협 다교를 조망하거나, 잘 정비된 공원 등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느긋하게 보낼 수 있다. 해수욕, 바다낚시, 바베큐, 크루즈 등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세계절에 걸쳐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협 도시」의 매력을 체험해보자.

오쿠라 해안공원 . 오쿠라 해안 해수욕장

아카시 해협 다교와 아와지 섬을 바라보는 개방적인 대형공원. 바베큐 시설을 비롯하여 풋살, 그라운드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는 인공잔디 운동장 등도 정비되어 있어 산책을 물론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이 개방되어 많은 해수욕 손님들로 붐비는 인기 장소.



아카시 항과 구(旧)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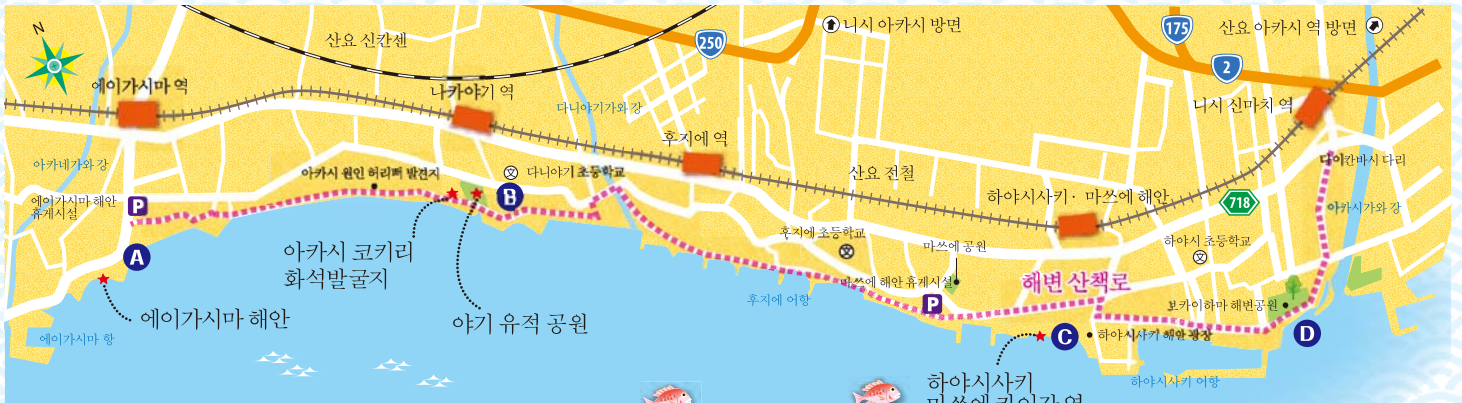
정식명칭은 구(旧) 하토자키 등대당. 1657년에 세워져, 현존하는 석조식 구 등대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귀중한 역사유산, 드라마 촬영지였던 적이 있다.



제노바라인 미니 크루즈



아카시와 아와지 섬을 연결하는 고속선인 아와지 제노바라인. 아카시 항을 출발해 아와지 섬의 이와야 항을 돌아 아카시 해협을 왕복하는 약 40분간의 정기항로를 활용하면 미니 크루즈 여행으로 즐길 수 있다.



해변 산책로의 촬영 포인트

A 다루마 석양

석양은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오목이 모양의 다루마 석양 촬영은 서쪽에 위치한 에이가시마 해안을 추천한다. 10-3월에 걸쳐서 조건이 갖춰지면 다루마 석양을 볼 수 있다.



B 벽화

해변 산책로의 벽에는 아카시의 역사와 전설에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다.

C 스탠드업 패들을 즐기는 풍경

해양 스포츠는 하야시사키-마쓰에 해안에서 활발히 이뤄진다. 스탠드업 패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D 아카시 해협 다교의 전체 풍경

해변 산책로에서는 아카시 해협 다교의 전경을 멋있게 사진에 담을 수 있다.

해변 산책로

아카시 강 서쪽 해안에서 에이가시마 해안까지의 해안을 따라서 이어지는 약 7km의 산책길. 아카시 해협과 아와지 섬을 바라보면서 어항과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차량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조깅과 사이클링에도 최적의 장소다. 계절감과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해협의 도시」를 체험해보자.



하리마 사이클링 로드란?

아카시시에서 히메지시까지를 연결하는 약 35km의 자전거길. 해변 산책로도 코스에 포함되어 있고, 업 다운이 적어서 쾌적하게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다.



역사 의 도시



아카시 성 (아카시 공원)

오가사와라 다다시마사에 의해 건축되어 약 400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100 대 명성의 하나.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다쓰미 야구라와 히쓰지사루 야구라는 봄과 가을의 토, 일, 경축일에 격월로 일반 공개되며, 내부에는 에도시대 중기의 아카시의 계획을 복원한 모형을 전시. 일본의 도시공원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무사시의 정원」이 아카시 공원 내에 있어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역대 영주

아카시 성의 별칭을 「기슭조」라고 이름한 것은 제 6 대 영주 마쓰다이라 노부유키이다. 성 내에 이정표와 웅수로를, 해안에는 방풍림 등을 조성했다고도 전해진다.

역사상 인물들에게도 사랑받은 아카시

아카시 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서 발달한 아카시. 미야모토 무사시가 아카시를 구획했다고도 전해지며, 만요 시인인 가키노모토 히토마로가 남긴 노래와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겐지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풍경 등, 시내에는 유명한 역사상의 인물과 관련있는 사적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옛 모습을 떠올리며 거리를 걸으면 아카시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카사키 공회당

1911 년에 건축된 다목적 홀로, 개관식 때는 나쓰메 소세키가 강연한 역사도 있다. 나라·가마쿠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도입하여, 목조 트러스 구조를 채용하였다. 국가등록 유형문화재.



젠라쿠지 절(가이코인, 엔주인)

가이코인과 엔주인의 총칭으로, 시내에서도 역사깊은 사원의 하나. 645년 호도센년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가이코인에는 기요모리 공양탑, 엔주인에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만든 정원이라 전해지는 가래산스이 정원이 있다.



후나게 성 유적(후나게니시 공원)

1585 년 다카야마 우콘이 거성 도읍과 함께 축성. 후나게니시 공원에는 다카야마 우콘의 설명과 당시와 현대의 일러스트 지도가 그려진 안내판이 있어 당시의 후나게 성 밖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체험도!

헤이안 시대의 귀족 가모노인 주니히토에와 같은 요로이를 무료로 입어보는 체험도 있다. (입관료 별도로 필요) 예약제로, 한 달에 3회 정도 개최된다.



아카시 시립 문화박물관

아카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 상설전에서는 8 개의 테마로 나누어, 아카시 코끼리의 골격모형과 아카시 원인(原人), 아카시 성, 아카시의 어업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계절별로 특별전도 개최된다.



겐지 모노가타리와 관련된 장소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연애소설 「겐지 모노가타리.」 아카시를 무대로 한 「아카시 편」에 등장하는 신사와 절, 사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히카루겐지가 전개하는 러브 스토리를 떠올리며 실제로 방문해 보자.



무료코지 절과 쓰타노 호소미치

무료코지는 겐지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히카루겐지가 달구경을 했다고 전해지는 저택. 쓰타노 호소미치는 히카루겐지가 아카시의 연인이 사는 오카베 저택으로 다니던 오솔길. 로맨스 가득한 곳.

시간의 도시

아카시 시립 천문과학관

동경 135도 일본표준시 자오선 상에 지어진, 시간과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학관. 건물 자체가 국가등록 유형문화재이며, 일본의 표준시를 나타내는 탑시계는 아카시의 상징이기도 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플라네타륨도 여기에 있다.



시간에 관련된 시설과 설비가 충실하다

일본 표준시인 동경 135도 자오선이 지나서 아카시는 그야말로 「시간의 도시」. 그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오선 상에 세워진 천문과학관에서는 시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시내에는 자오선을 나타내는 표식과 다양한 해시계를 볼 수 있으며, 정비된 도시유람길인 「도키노미치(시간의 길)」 등 시내를 걷다 보면 시간의 로망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시간」과 관련 깊은 관광지를 돌아보는 하이킹

통칭 시간의 길 (약2km)

① 아카시 공원

② 아카시 시립 문화박물관

③ 우에노마루 교회

1907년 가와베 데이키치와 S. E. 쿠퍼 선교사에 의해 복음전도 시작. 건물 정면 벽에는 해시계가 있다.

④ 혼소지 절

후나게에 있던 혼소지 절을 옮겨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만든 가렌산시가 정원이다.

⑤ 「도키노미치」(시간의 길)를 나타내는 쫓대

도키노미치 길 가에는 십이지가 새겨진 돌 쫓대 12곳이 있다. 발견하면서 걷는 것 재미있다.

▲ = ⑤ 「도키노미치」(시간의 길)를 나타내는 쫓대



⑥ 겐쇼지 절

산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 후시미성의 야쿠이문으로 건립한 뒤, 그 후에 아카시 성의 정문이 되었다. 메이지 초기, 성으로서의 역할을 끝내면서 이전 건축되었다. 천황과 상황으로부터도 단차쿠 등이 봉납되어, 그 일부는 국가와 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⑦ 가키노모토 신사

뛰어난 시인인 가키노모토 히토마루를 모신 곳으로 「히토마루상」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 재난의 신이며, 그 외에도 학문, 문화예술, 순산, 좋은 연분에 영험하다. 경내에는 히토마루의 전기, 단가 비석 등이 다수 있다.

⑧ 잠자리 표식

동경 135도 일본표준시 자오선을 나타내는 표식 기둥. 「아키쓰」라는 옛 이름의 잠자리가 일본의 옛 명칭인 「아키쓰 섬」의 상징으로 기둥 위에 놓여 있다. SF만화가인 마쓰모토 레이지 씨가 유소년기에 보고 우주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된 표식으로 유명하다.

⑨ 아카시 시립 천문과학관



**시간을 되새기는
곳 아카시
교통편**



시간을 되새기는 곳 아카시

**동경135도
일본 표준시
자오선**



일본 각지에서의 교통편

[대중교통으로] 아카시 시립 ※소요시간은 대략의 기준입니다.

